

세계 정보격차 해소 동향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박지훈
(T. 570-4435, heyds@kisdi.re.kr)

1. 개요

최근 ITU, UNCTAD 및 협력 기관들이 공동으로 세계정보사회 보고서 2007을 발간하여 2003년과 2005년에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에서 합의된 내용 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진전 여부를 평가하였다. WSSIS에 참석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보격차를 정보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하였다. 보고서의 내용 중 정보격차 동향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경제성장 수준으로 측정한 정보격차율

UN의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등의 국가 분류를 사용하여 세계의 정보격차를 측정할 수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보격차를 측정하였다.

- 1) OECD+: OECD에 가입한 30개국에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타이완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의 18.7%에 달한다.
- 2) 저개발국(LDCs): UN이 지정한 50개국을 포함하며 세계 인구의 11.9%에 달한다.
- 3)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위의 2개의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인도 등의 국가를 포함하며 전 세계 인구의 69.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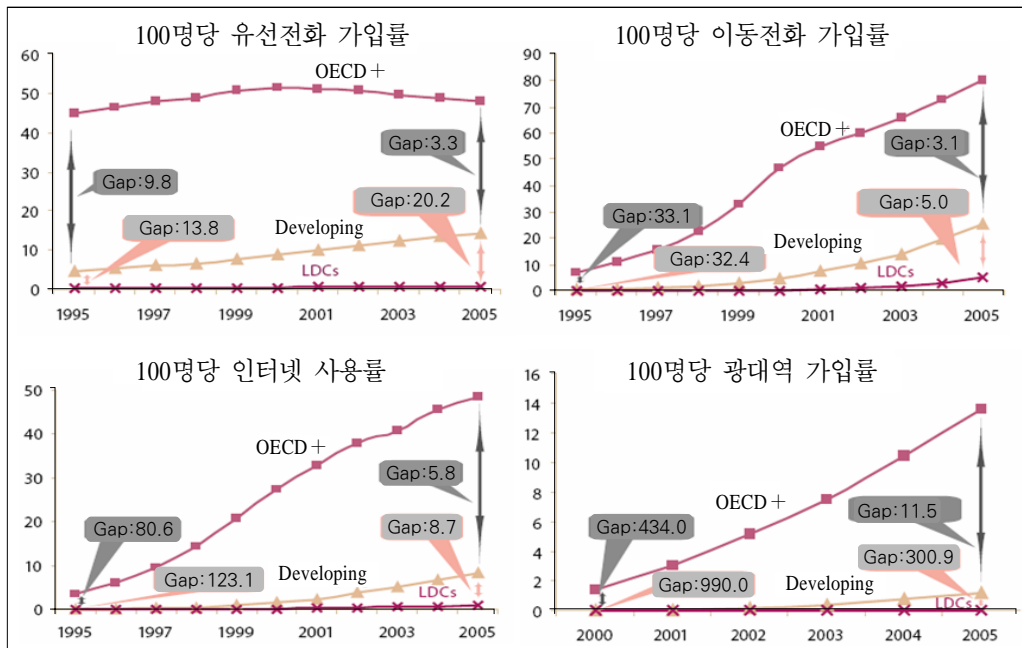
[그림 1]에서는 유선, 무선, 인터넷 및 광대역 사용자의 1995~2005 기간의(광대역은 2000~2005) 정보격차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현상은 유선전화 가입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ECD+와 개도국의 격차가 1995년 9.8에서 2005년 3.3으로 감소하였으며 OECD+ 국가에서는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개발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는 1995년 13.8에서 2005년 20.2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1995년 1천2백만 가입자에서 2005년에는 11.5억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OECD+와 개도국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1995년 33.1에서 2005년 3.1). 저개발국에서도 무선통신 가입자가 매년 93% 증가하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와 유선전화 가입자의 비율이 7:1에 달한다.

정보격차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인터넷 가입자수의 격차도 OECD+와 개도국간에 80.6:1에서 5.8:1로 감소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OECD+ 국가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한 반면 개도국에서는 12명당 1명 그리고 저개발국가에서는 100명당 1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OECD+와 개도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도 434:1에서 11.5: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절대적 백분율 수치로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양적·접근성의 개념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정보격차 해소의 주장이 질적·역량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ICT 분야별 정보격차 현황



나. 소득수준으로 측정된 정보격차율

정보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분류의 또 다른 방법은 세계은행이 소득별로 구분한 저, 중하, 중상, 고소득 등의 분류를 사용하여 ICT 주요 지표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 1>에 이러한 국가 분류의 국가수, GDP 및 인구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고소득 국가의 인구 비중은 15.7%이지만 세계 GDP의 79.9%를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의 인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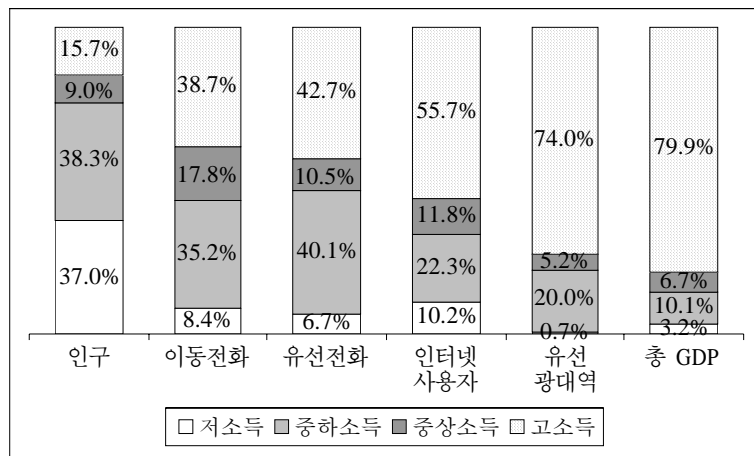
은 37%이지만 3.2%의 GDP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1〉 소득수준별 인구 및 GDP의 분포

소득 구분	국가수 (2005)	1인당 GDP (2005년 US\$)	인구(2005년, 단위: 백만)	인구 백분율 (2005)	총 GDP 백분율 (2004)
고소득	55	29,434	1013.3	15.7	79.9
중상소득	39	4,344	584.8	9.0	6.7
중하소득	54	1,521	2479.1	38.3	10.1
저소득	58	503	2396.3	37.0	3.2
합계	206	5,768	6473.5	100.0	100.0

세계 주요 ICT 지표의 분포는 ([그림 2] 참조) 국가별 GDP 분포보다 불균형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가장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광대역 가입자수는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T 부문은 인터넷 사용자이며 이는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10.2%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전화 가입률이 유선전화 가입률 보다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2005년도 말에는 유선전화 1대당 1.7대의 이동전화가 사용되었다. 고소득 국가에 세계 광대역 사용자의 74%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15.7%만을 포함한다. 인도와 베트남이 저소득 국가의 94%의 광대역 사용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하소득 국가 중 중국이 단독으로 87%를 차지하였다.

(그림 2)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주요 ICT 지표의 분포(2005)



* 총 GDP는 2004년 자료임

유선 광대역의 이러한 격차는 고소득과 저소득 국가 간의 광대역 사용료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표 2〉 참조). 고소득 국가에서는 광대역 사용료가(100kbit/s 당) \$16 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186으로 거의 12배에 달한다. 또한 저소득과 고소득 국가의 소득 대비 광대역 사용료는 무려 432:1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소득의 2.1%만을 광대역 사용료에 지출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장 저렴한 광대역 서비스도 평균 소득의 909%에 달한다.

〈표 2〉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인터넷 및 광대역 사용료(2006)

소득 구분	월 인터넷 사용료		월 광대역 사용료		광대역 사용료	
	US\$	월 소득의 비중(%)	US\$	월 소득의 비중(%)	100kbit/s 당 US\$	월 소득의 비중(%)
고소득	22	0.9	15	0.7	16	2.1
중상소득	22	4.9	12	2.6	19	4.9
중하소득	24	19.7	11	7.6	93	71.8
저소득	44	172	13	54.9	186	909
세계평균	29	55.2	13	18.3	72	225.1

3. 결 어

주요 ICT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5년 보다 2005년에 국가 간 정보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간 정보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광대역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저소득 국가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한 정보격차도 존재하겠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기구 및 선진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ITU,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Beyond WSIS, 2007. 5. 16.
- [2] www.digitaldivide.net